온 가족 함께 즐기는 '꿈틀꿈틀 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진행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여름방학을 맞아 9~24일까지 3주간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 '꿈틀꿈틀 미술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9~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회당 10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지난 7월 31일부터 수강자를 모집했다. 신청 접수 첫 날부터 4회차 프로그램이 모두 조기 마감이 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23~24일 2개 강좌를 추가 개설, 1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만 5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수·목요일에 전북도립미술관 실기실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9일 핸디코트 바다 그리기, △10일 핸디코트 아이스크림 그리기, △16일~24일 나만의 입체적인 수족관 만들기다.

또 미술관에서는 평등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특별전 '미안해요, 프랑켄슈타인'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오는 11월 26일까지 관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jma.go.kr) 및 인스타그램(jeonbukmuseumofart)과 JMA FRIENDS 공식 SNS(jma_friends), 페이스북(jmamuseum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전북도립미술관 교육문화팀(063-290-6866)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꿈틀꿈틀 미술관' 포스터

'K-컬처 시대 번역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한국문학번역원 ·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 18일 진행

한국문학번역원은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와 함께 오는 18일 'K-컬처 시대의 문학·문화콘텐츠 번역과 번역교육의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인공지능(AI)이 일상 곳곳에 파고드는 'AI 격변기'에 번역 윤리와 번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K-컬처 시대의 AI번역과 번역교육'과 '미래지향적 문학·문화콘텐츠 번역교육체계 구축방안' 총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세션에서는 윤성우 한국외대 철학과 교수가 'AI기술의 진화와 번역윤리 그리고 번역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심재환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스페인어권 교수가 'AI번역과 K-컬처 시대의 번역교육'에 대해 다룬다.

두번째 세션은 최애영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프랑스어권 교수가 '번역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성과와 과제'를, 전혜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통번역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성과와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끝으로 최미경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한불전공 교수는 지난해 번역원의 교육과정 개편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문학·한국어문화예술콘텐츠 통합번역교육과정 구축 연구 성과'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에 이어 다가오는 시대의 번역에 대해 다루는 두번째 자리다. 번역원 측은 "K-컬처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세계문화의 큰 흐름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전문 번역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새로운 문화·기술 환경을 마주한 한국문학·예술문화콘텐츠 번역가들이 조화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전했다.

심포지엄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17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 신청을 하면 누구나 링크를 받아볼 수 있다. /뉴시스

문체부, 뉴진스 · NCT 드림 · 있지 등 18팀 확정… 잼버리 K-팝 콘서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마지막을 장식할 K-팝 콘서트의 출연진이 확정됐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걸그룹 뉴진스를 비롯해 NCT 드림, 있지(ITZY) 등 총 18개 팀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하는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콘서트에 출연하는 아티스트는 뉴진스, NCT 드림, 있지, 마마무, 더보이즈, 셔누&형원, 프로미스나인, 제로베이스원, 강다니엘, 권은비, 조유리, 피원하모니, 카드, 더뉴식스, ATBO, 싸이커스, 홀리뱅, 리베란테 등 18개 팀이다.

공연은 오는 11일 오후 7시에 시작하고 진행은 배우 공명, 있지의 유나, 뉴진스의 혜인이 맡는다. 폐영식은 공연 시작 전 오후 5시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전북문화관광재단, 도내 예술인 대상 역량강화 교육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10일 '2023 예술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사업' 3회차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해 도내 예술인의 저작권 관련 교육, 전산 등 실무중심의 기초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노무법인 비젼의 이상미 노무사를 강사로 초대해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한 예술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 노무사는 2018년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대상 노동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로, 예술 현장의 불공정 행위예방과 대체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1회차 교육에서는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상의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2회차는 예술 활동 관련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진행됐다.

9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진행되는 예술인 역량 강화 교육의 참석을 원하는 도내 예술인들은 이메일(jb_7447@hanmail.net) 또는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30~3)로 신청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규방의 미친 여자들' 고전 속 여성 영웅 집중

"장화홍련 · 콩쥐팥쥐 속 진짜 빌런은 아버지"

'규방의 미친 여자들'(한겨레출판)은 우리 고전 속 여성 영웅에 집중한다.

영웅의 '웅'이 수컷을 뜻하는 말이란 사실에서 알 수 있듯 기존의 영웅 이야기는 남성 중심의 서사다. 이에 저자 전혜진은 태초의 여성 신화 '바리데기'부터 정상가족에 도전한 '방한림전'까지 숨겨진 여성 영웅들을 발굴하고 이야기를 여성서사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했다.

'장화홍련전'과 '콩쥐팥쥐전'은 사악한 계모가 전처소생의 딸을 구박하는 이야기로 기억되지만 사실 두 소설에서 딸에게 정말 위협적인 존재는 계모가 아닌 무관심한 아버지다. 소설 속 가부장들은 한정된 재산이나 집안의 기득권을 두고 계모와 딸 사이에 생긴 갈등을 자신이 신경 쓸 필요 없는 집안일로만 여겨 방관했다.

두 아버지는 장화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누명을 쓰자 딸을 살해하는 것을 묵인하고 팥쥐가 콩쥐를 살해하고 감사 부인 행세를 하느라 집에 없는데도 딸을 찾지 않는다. 이렇듯 딸의 고난에 무관심했던 아버지들 그리고 아버지들의 무관심을 용인한 당대 사회가 딸들의 비극을 낳았다.

우리의 여성 주인공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여성 잔혹사에 맞서 생존을 위한 분투를 벌이면서 영웅으로 거듭난다. 따라서 이들의 이야기는 단지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나 특별한 능력을 갖춘 한 여성의 성공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제약에 맞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들, 곧 이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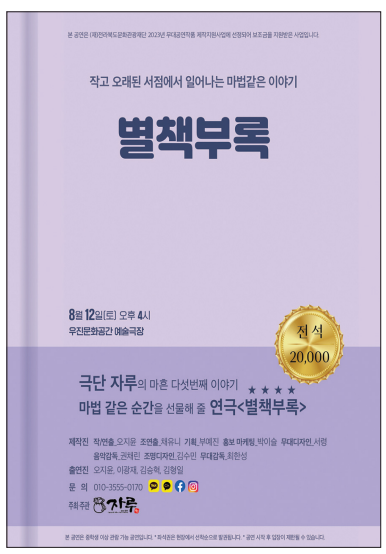
극단 자루, 연극 '별책부록' 12일 공연

극단 자루(대표 오지윤)는 오는 12일 오후 4시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별책부록' 연극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극 '별책부록'은 삭막해진 세상에 지친이들은 추억과 낭만 그리고 무한한 상상의 세계에서 마음껏 날고 싶어할지 모른다. 나만의 힐링 공간에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뛰놀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1999년을 살고 있는 문학소녀 은영과 2023년을 살고 있는 재환이 아늑하고 따뜻한 화니책방에서 쪽지를 주고 받으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마법 같은 이야기다. 출연진에는 은영 역에 오지윤, 재환 역에 이광재, 환 역에 김승혁, 현수 역에 김형일 배우가 참여한다.

극작과 연출을 맡은 오지윤 대표는 "작고 허름한 책방에서 출발하는 여행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또 그곳에서 만난 나는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한 상상에 초점을 맞췄다"며 "'별책부록'을 관람하는 분들께 잔잔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고 싶다"고 전했다.

공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문화관광재단 창작지원팀(063-230-7442)과 극단자루(010-3555-0170)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